

# 글로벌 현안해결 주도적 참여... 주요국 백신·경제협력 확대

## 문 대통령 유럽순방 일정 종료

G7 참여, 오스트리아·스페인 방문  
보건·경제·문화 등 韓 역할 제시  
코로나後 국내기업 진출기회 모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로 '보건·경제·문화 협력 강화'가 꼽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주요국과 백신 등 협력을 성사시킨 점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점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 점'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G7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과 순방 성과 홍보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결례' 논란은 오점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G7 회의와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민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G7 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인 보건·기후변화 대응 논의 과정에 참여, '한국의 방역, 디지털, 바이오 역량을 활용해 국제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페인을 국민 방문한 문 대통령이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산파우 병원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기 전 환영 나온 교민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 수행 ▲개발도상국에 백신 지원 차 코백스 선구매 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추가 기여 계획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 모색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의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 전환 노력 등을 G7 국가에 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G7 회의 논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했다.

G7 기간 문 대통령은 영국, 호주, 독일, 유럽연합(EU), 프랑스와 양자회담도 가졌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실질 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국에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 포함된 남·북, 북·미 대화 지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를 국민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 비엔나 벨베데레궁에서 열린 국민만찬에 참석,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G7 일정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 각각 국민 방문했다. 먼저 양국 간 수교 129년 만에 오스트리아에 국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함께 문화, 투자, 청소년, 교육 등 교류협력 확대 차원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5G, 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차원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등도 합의

했다.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 최초로 국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해외건설 시장 공동진출 확대 합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친환경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두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위치에서 규칙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위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 경제 회복 과정에 동참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를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과 우리나라의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한 것도 하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장관 교체 등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취임을 계기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다시 가동, '협치' 노력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네이버-카카오, 코스피 시총 지형도 바꾼다

양사, 기업규모 성장... 3위 경쟁  
네이버 웹툰·웹소설 등 해외실적 ↑  
카카오 액면분할 이후 주가 33% 급등

카카오와 네이버(NAVER)가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 7년 만에 네이버 시총 규모를 따라잡았는데, 올해 들어 카카오의 시총은 34조원, 네이버는 17조원 증가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카카오가 시총 순위 3위, 네이버가 4위로 자리를 마감했다. 카카오 주가가 4% 넘게 오르며 네이버와 3조5000억원 이상 시총 격차를 벌린 것. 이날 기준 카카오의 시총은 68조8090억원, 네이버의 시총은 65조3768억원이다.

지난 15일 사상 최초로 시총 3위에 오른 카카오는 다음날인 16일 네이버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17일 다시 3위 자리를 뺏은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를 합한 시총이 총 73조9344억원으로 그룹 단위 상장사 시총 기준 국내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그룹 751조원 ▲SK그룹 200조원 ▲LG그룹 158조원 ▲현대차그룹 152조원 등의 순이다.

◆카카오, 액면분할 후 주가 33% ↑  
지난해 말 코스피 시총 순위와 비교했을 때 언택트(비대면)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승세는 가팔랐다.

언택트주가 나란히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SDI를 제친 것이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 순위 | 종목명      | 시가총액      |
|----|----------|-----------|
| 1  | 삼성전자     | 480조5674억 |
| 2  | SK하이닉스   | 90조6362억  |
| 3  | 카카오      | 68조8090억  |
| 4  | 네이버      | 65조3768억  |
| 5  | LG화학     | 58조269억   |
| 6  | 삼성바이오로직스 | 55조3139억  |
| 7  | 현대차      | 50조2120억  |

2021년 6월 18일 기준 /한국거래소

특히 카카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회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인데,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핵심 자회사들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17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7~8월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시화된 상태다.

또 지난 4월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해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높아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10만원대에 카카오 주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액면분할 이후 두달 만에 주가가 33% 넘게 상승했다.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 액면분할 직후 60거래일 넘게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며 주가가 침체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금융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콘텐츠도 웹툰·웹소설에서 상

대적으로 약세였던 해외 진출이 6월부터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콘텐츠로 해외시장 공략

반면 실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체급 차이는 네이버가 압도적이다. 해외 진출 규모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 1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2888억원, 카카오의 경우 157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네이버웹툰은 미국 구글플레이 만화 앱 중 수익 1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1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도 인수한 상태다. 네이버는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세계그룹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나오는 중이다.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이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확장돼 카카오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 협상 막바지에 네이버가 발을 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굳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입찰 절차에 참여한 바 있으나, 본 입찰은 계속 진행 중이며 당사의 참여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사고대처·노동환경 도마위... 불매운동 '꿈틀'

## 쿠팡 물류센터 화재 후폭풍

SNS·온라인서 쿠팡탈퇴 글 쇄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경영자 지적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 경기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쿠팡 불매·탈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쿠팡의 안일한 사고 대처와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된 노동환경 문제까지 도마위에 오르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사고 발생 32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해당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몹시 송구하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늦장 대응에 많은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비난을 샀다.

쿠팡 불매·탈퇴 움직임은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쿠팡 탈퇴'와 관련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날 트위터에는 대한민국 실시간트렌드 4위에 '쿠팡 탈퇴'가 올랐다. 19일 5시 기준 '쿠팡 탈퇴'와 관련된 내용만 16만7000여건이 게재됐다.

공교롭게도 17일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 법인 쿠팡(주)의장·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범석 창업자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겹겹이 무너져 있다.

고집했다. 배송 기사 과로사 문제 등 쿠팡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직책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것. 실제로 쿠팡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만 9명이 사망했다.

이에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경영자'라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불매·탈퇴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쿠팡 측은 김범석 창업자의 의장직 사임에 대해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말에 확정된 내용을 이날 발표한 것 뿐이며, 화재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창업자는 19일 오후 6시 30분 김 구조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하남 마루공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쿠팡은 20일 오전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과 물류센터직원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유족과 협의해 순직 소방관 자녀분들을 위한 '김동식 소방령 장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화재로 소중한 일터를 잃은 우리 직원분들도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